

# 유망 강소기업 지원 확대

### 군산시, 지역 산업부흥 이끌 유망 기업 성장 유도 준비 박차

군산시가 16일 성장 가능성이 높고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 부흥을 이끌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풍부한 유망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시는 육성사업을 도내 시군 최초로 시행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관내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성장 유도를 위해 유망 강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

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한 계획이며, 지난 3년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한 유망 강소기업 중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 일부는 강소기업으로 선정,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 유망 강소기업 선정 자격은 △군산시에 본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창업한 지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 재무제표 기준 최근 3년결산 매출액 400억원 미만이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시 제품 제작, 공정개선, 국내외 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5천만원을 3년간 매년 지원,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3천만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19년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주)풍림파마텍은 이 사업의 지원을 통해 시제품 ‘주사기 고무전’ 제작 주사기 및 주사장치 특허출원 등의 성과를 냈으며, (주)태평양은 가드레일 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량 증가 및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등의 성과로 두 기업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코스텍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표창 대왕페이퍼는 전북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 강소기업에서 군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은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있다. 최근 기업부설연구소 등 R&D 역량을 갖춘 기업이 대폭 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즐겁고 편안한 설명절 보내세요’

### 군산시, 설 연휴기간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군산시는 다가오는 설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보건,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 10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 근무반을 특별 편성해 도로 파손 긴급보수, 불법 주차차 차량 지도 단속, 상·하수도 긴급보수, 쓰레기 처리, 비상 진로 등을 실시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전화 120, 휴대폰 063-120으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



리하고,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약국, 음식점 등 생활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고향을 찾는 귀성객,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연휴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정현을 시장 “설 명절 민생안정 총력 다할 것”

### 익산시, 종합대책 마련... 1천억원 신속 집행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시책 추진

정현을 익산시장이 다가올 설 명절 대비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1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먼저 전통시장 장보기에 참여하는 등 솔선수범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깔끔

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 쓰레기와 불법 현수막 수거 등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시는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시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우선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1천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오는 20일까지 취약계층 지원 438억원, 각종 공사·용역 자금 84억원,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시설 인건비 124억원 등이 포함된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11곳에서 다리로움 카

드를 통해 3만원 이상 결제한 시민 1천명을 추첨해 다리로움 정책수당 1만원을 지급한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리라”며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설 명절을 외롭게 보내지 않도록 세심히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다양한 시정 성과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정보와 시정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직불금 120억원 지급... 농가 소득안정

익산시는 2022년산 시비직불금 120억원을 설 명절전에 지급해 지역 농가의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하고 소득보전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시비직불금 예산을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20%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에만 지원하던 것을 날 농업까지 확대하여 통합 5ha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시비 직불금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 지역 농업 기반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익산시내 주수가 등재된 농업인으로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 대상 농지에 대해 최대 5ha까지 지급한다.

총 지급 면적은 약 1만5,961ha, 인원은 1만3,579명으로 지난해보다 1,397ha의 면적이 늘어났으며 지급인원도 1,959명 증가했다.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1ha당 6만3,000원이 증액된 74만7,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비 직불금의 지급을 통해 농가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가 소득안정과 안정적 영농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2023년 실무계장 중심 시민체감 혁신시책 추진

익산시가 실무 담당계장 중심의 시민체감 혁신시책 추진에 나선다.

시는 담당업무 계장을 실무 중심축으로 삼고 생활밀착형 규제 애로 해소부터 지속적 지역발전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혁신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혁신시책 발굴 보고회가 이달 16일부터 8일간 전대식 부시장 주재로 추진된다.

이번 보고회는 기존 과장 보고에서

벗어나 총 8일간 마라톤 보고방식으로 분청 및 사업소 실제 업무추진 담당 계장 248명이 직접 주요 업무 성과 및 혁신 발전방안 시책을 보고한다.

이는 계장 중심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과 함께 담당 계장으로부터 생생한 업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발굴 분야는 △규제 애로 발굴 △지역소멸 대응 인구·청년정책 △디지털 초고령화, 기후변화 등 행정환경 변화 대응 △정부 정책 및 공약사

업 성과 극대화 △타 지자체 사례 및 주민편의 공공서비스 창의 아이디어 등으로 총 248개의 혁신시책을 선보인다.

혁신시책 발굴보고회 이후 국소단별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혁신시책 1차 평가를 거치고 2월 중 우수혁신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혁신시책 경진대회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계장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인사기점과 상시학습 실적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4000만원 부과

군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3,719건, 7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 차등 구분해 과세된다.

납세자는 이번 등록면허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588-5663),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

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이종현·강경숙 익산시의원 시공모사업 관리 조례 발의

이종현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상질의 공모사업을 유지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이 조례는 공모사업을 종업계획을 수립하게끔 했으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확보되는 국·민공 시비 부담 또한 늘기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게끔 한 조항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보다 강화하였다는 평가이다.

이종현 의원과 강경숙 의원은 “익산시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가 정영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2023년 첫 조례로 원안가결하였다.

청렴한 행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청렴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익산시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해 오고 있던 청렴 교육 및 홍보, 청렴도 조사,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미 의원은 “익산시가 새해 사자성어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의 이청득심(耳聽得心)을 선정했다.”며, “행정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익산시의 청렴도와 대민 행정의 민감도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